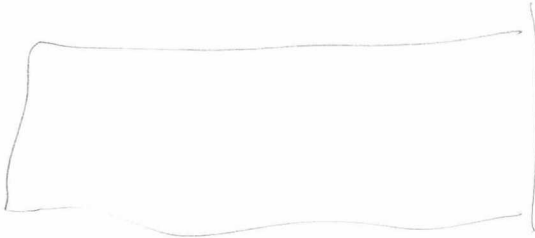


관광 청양의 미래를 본다



최종호 | 청양군 전략사업 팀장

우리 청양은 태고시대부터 칠갑산 자락에서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자손손 살아온 농경문화의 산실이다. 산자수명하고 후덕한 인심은 어디하나 도시풍의 자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너무나도 친숙하고 친진스럽기까지 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살아온 발자취가 지금도 우리 곁을 지켜오고 있다.

장승제, 산신제, 동화제, 용왕제, 목신제 등의 행사가 매년 연초에 마을에서 치러지고 있음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표이다.

옛부터 내려오던 농촌의 전통문화와 보수적인 생활을 하던 때는 지나 고요한 산촌마을에 기계화 농업이 정착하면서 자연의 숨결을 맛보고 농촌체험을 위하여 도시의 물결이 일고 있음은 새로운 농촌의 혁신이다.

그동안 개발하지 않고 묵혀 두었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천하에 알리고 찾아와서 보고 즐기며 익히고 머물다 떠날 수 있는 관광청양의 모습을 이제는 드러낼 때이다. 훗날 잘사는 청양, 발전된 관광청양의 참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청정 청양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개발을 지표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겠다.

농축산물의 개방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과 소

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군의 풍부한 전통문화와 어메니티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의 다양한 웰빙 욕구를 만족하면서 도·농 상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각인시켜 본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말씀이 생각한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훨씬 훌륭하오! 전 국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가 2시간 이내면 청양을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하늘이 준 천혜의 보배요』, 사실 그렇다! 우리 청양군의 경쟁력은 수도권 도시민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배우고 만족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청양의 미래는 칠갑산을 중심으로 호수와 지천을 연계한 칠갑호 주변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휴양림 확대사업, 오토캠핑장 설치, 번지 점프장, 눈썰매장, 우드랜드, 향토상품 전시관, 페러글라이더장, 곤돌라, 생태학습장, 알프스 펜션단지 등 휴양시설을 갖춘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지천생태학습장, 지천집단지설지구 개발,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등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천장호 출렁

다리, 칠갑산스타파크, 도림온천지구 개발, 종합사격장, 골프장 조성, 장곡사, 장승공원 확대개발, 줄무덤 성역화, 고운식물원, 고추랜드, 고추문화마을 조성과 연계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벨트화 사업을 개발하므로 한시라도 청양을 찾는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관광산업기반 시설을 서둘러 앞당겨 이룩해야겠다. 청양에 와서 타고 온 차를 주차하고 관광지과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관광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군은 골골마다 농토와 농가가 오밀조밀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마을마다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농자매결연 전 마을 맺기, 일사일촌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육성 발전시켜 가족단위, 직장단위 또는 홈스터디 등 영농체험, 전통음식체험, 전시체험관 운영, 심포지엄 토론회 등 다양하게 운영해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 군포시, 안산시 등의 시·구민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습지에 디즈니랜드라는 꿈과

환상의 공간을 창조한 월트디즈니,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모래로 만들어지고 있는 두바이의 인공섬 팜아일랜드,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우리 청양군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꿈의 관광선진자치 단체를 만들어 가야하겠다.

앞으로 미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영감(靈感)의 시대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인재(人才)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근본적 지식에다 꿈과 상상력, 이미지, 창의성을 더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 관광청양의 미래는 밝다. 자연의 숨결 속에 파묻어 놓은 훌륭한 보배를 갖고 가꾸어 자손만대에 내려줄 힘은 어디에서 올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성하면서 창조정신과 개척정신이 새로운 관광청양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 줄 수 있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선배들의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공의 어머니로서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관광 청양군을 이룩할 수 있다.



장곡사 전경 (2007. 7. 13)